



원생들에게 살아가는 힘 키워주기 위해 만난

수원 비엔나베이커리

‘당장 먹을 물고기를 주기 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순간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혼자 힘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의미로 자주 인용되는 말이다.

수원지역에서 비슷한 나이 또래로 만나 비엔나 베이커리 라는 동일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여덟명도 불우한 이웃을 대상으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다.

회장인 김윤수씨를 비롯해 공병윤, 김종천, 조봉형, 엄익태, 인성왕, 홍기선, 윤대근씨 등 여덟명이 모인 것은 지난 93년 10월이었다. 처음에는 뜻이 비슷하고 수원농고 졸업생이라는 동질감 등을 이유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네명이 작년 8월 먼저 만나기 시작했다.

그후 올해 5월에 지역내에 있는 효행원을 찾아가 제빵 실습실을 마련하고 빵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면서 모임은 본격화 되기 시작했다.

“13평 정도되는 작은 규모이지만 이곳을 준비하는데 한달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두들 시간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각자 여유가 생기는 틈틈히 작업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날은 못 한게 박고 돌아가는 날도 있고”. 김종천씨의 설명이다.

이렇게 마련한 실습실에서, 주변에 알려질까 조심조심 효행원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빵 기술을 가르쳤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난 11월 29일 정식적인 결연관계를 맺었다. 그 과정에서 네명이던 회원이 여덟명이 되는 수확도 얻었다.

처음에는 어렵게 성장한 것이 동기가 돼서 효행원을 돕기 시작했다. 어느정도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겼다고나 할까. 그래서 비엔나 베이커리 모임 회칙에는 앞으로도 끝까지 제과 기술자로서 장인정신을 잊지않고 기술개발에 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원칙 외에 정규적으로 고아원을 돕는데 동의하는 사람이라는 단서가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도와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인 결연관계를 맺게 된 것은 그 ‘입장’을 ‘책임감’으로 발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병윤씨의 설명이다.

그래서 효행원과 의논을 해 중학교 졸업 후 제과쪽에 적성이 맞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골라 기술을 지도할 생각이다. 원생들이 관심은 많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그들 모두에게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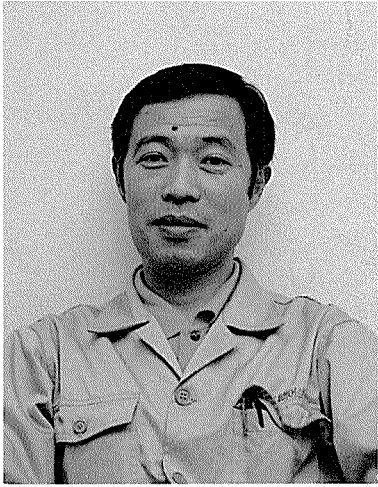
그래서 우선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번씩 돌아가면서 이곳에 옵니다. 그러면 원생들은 일주일에 두번만 빵을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보육교사에게 기술을 가르치면 언제든지 간식으로 빵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빵만드는 법을 알아야 학생들 통제도 가능하구요.” 조봉형씨의 설명이다.

“효행원 아이들을 사귄 후 가끔씩 우리 가게로 데려옵니다. 지난 여름에는 팔방수를 만들어줬죠. 먹어봤냐고 물으니 못먹어봤다고 하더군요. 그 아이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처음 먹어본 팔방수의 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날 난생처음 먹어봤던 자장면 맛을 잊지 못하듯이. 우리들 노력에 비해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몇배 이상이기 때문에 즐겁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비엔나 베이커리 멤버들은 고아원을 돕는 일외에도 자신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쓸 생각이다. 함께 공동의 배합표를 작성하거나 재료를 함께 구입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주위에서 젊은 사람들이 물려다닌다고 불순한(?) 눈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개의치 않는다. 혼자하기 힘들어서 그들이 만났고 뜻을 함께 하기에 여덟이 모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이달의 근로왕' 수상한

강득찬

"20년 장기 근속자이고 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내 최다 제안, 술선수범 등이 인정받아 영예를 차지한 것 같습니다."

지난 94년 11월 서울시가 수여하는 '이달의 근로왕'을 수상한 제일유니버어살의 강득찬 대리는 부끄럽다는 듯 소감을 밝혔다.

'이달의 근로왕' 상은 서울시가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사의 추천을 받아 회사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 강득찬씨는 1974년 제일유니버어살에 입사한 이래 아침 7시에 출근해 기계 가동에 앞서 청결을 위해 청소에 앞장 서고 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갖가지 제안에 힘써 왔다.

그중 한 예를 꼽으라면 2명이 하던 생산공정 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해 모든 일에 술선수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때문에 한때 '청소 주임', '페인트 주임'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욕도 많이 들었다는 강득찬씨는, 자신 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성실과 진취적인 직장인상을 강조한다.

남들처럼 헤서는 잘 될 수 없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개인의 성공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회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만 이는 이기주의 성향이 강하고 주어진 일만 한다고 하지만 선배가 앞장서 술선수범하면 잘 따라 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진취적인 직장 생활에 앞장 서는 강득찬씨의 모습에서 모범 직장인의 한 전형을 발견하는 듯하다.

이제 1남1녀의 어머니. 평범한 가정주부 이원숙씨는 어느날부터 가슴속 저 밑바닥에 있는 답답함을 토해내고 싶었다. 그런데 집앞 크라운베이커리 매장의 유리창에 붙어있는 '주부글잔치' 포스터가 눈에 들어 왔다.

그녀는 4년전부터 글잔치에 응모한 경험이 있는 단골.

"처음 2년은 원고지를 받아다 쓰고 싶은 말을 무작정 썼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모임인내를 보게 되고 가슴이 설레었죠. 작년부터야 비로소 글쓰는 법을 배우면서 적극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죠." 그녀의 설명이다.

이원숙씨는 크라운베이커리처럼 기업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같은 행사가 마음에 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행사 목적이 기업홍보를 위한 것이겠지만 많은 이들에게 '동기'를 유발시킨

다는 점에서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번 주부글잔치에서 장원을 수상한 작품은 '기도서의 시몬'이라는 산문. 우연히 길에서 만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자신에게 건네준 메모에 감동해 천주교신자가 된 과정을 적고 있다. 잠시 스쳐지나간 학생이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에 신자가 될 수 있었던 그녀는 인생의 기쁨은 이처럼 작은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녀는 상금으로 받은 백만원을 지난 10년동안 가슴속에 간직했던 일을 위해 쓸 예정이다.

"남을 위해 써야겠지만...편지로 사귀 친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할머니인데, 그분을 만나러 가는 비행기표를 살 생각합니다. 남들은 제 얘기를 듣고 주책이라고 하지만 전 전혀 주책스럽지 않은 그녀의 계획이다. [21]



크라운베이커리 '주부글잔치' 장원 수상자

이원숙

당신도 '사람과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독자제보도 좋습니다. 주위사람을 추천하신 분께는 저희가 마련한 선물도 드립니다. 전국 어디라도 좋습니다. (02)277-8321~2 월간베이커리 편집부 사람과사람 담당자앞